

“여름엔 누수, 겨울엔 한파...이젠 한시름 덜었어요”

본보 2025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House Care’ 사업

전남 사랑의열매, 취약층 주택 개보수
방수·도배 등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연말까지 추진 ...“맞춤형 사업 지속”

“여름에는 누수, 겨울에는 한파로 수십년간 힘들었는데 싹바뀐 집을 보니 걱정이 사라졌어요.”

29일 오전 9시에 나주시 금당면 한 단독주택에 사는 박종식 (65)씨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하 전남 사랑의열매)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House Care’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 도배 공사를 보며 이같이 말했다.

도배 작업자는 내부 먼지를 털고 가구를 한 쪽으로 옮긴 뒤 벽의 치수를 재고선 곰팡이가 핀 낡은 도배지를 걷어냈다.

곳곳이 검게 물든 벽지가 덮고 있던 회색 콘크리트 벽 위에 작업자는 재단해 둔 새하얀 벽지를 하나씩 붙여 나갔다.

약 6시간의 작업 끝에 안방 벽 전체가 말끔하게 바뀌자 박씨는 새 집에 이사 온 첫날처럼 들뜬 마음을 환한 미소로 표현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처음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House Care’ 사업을 추진했다. 사진은 나주시 금당면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박종식 (65)씨가 곰팡이 핀 낡은 벽지를 걷어내고 새 도배를 하는 작업자를 지켜보는 모습. /주성학 기자

박씨의 주택은 1990년에 건조됐고, 그는 이곳에서 35년 넘게 살아왔다. 이 기간 벽과 지붕에 생긴 균열은 장마철마다 누수 문제로 박씨를 괴롭게 했다. 또 벽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고인 채로 마르면서 집 안 곳곳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럼에도 선뜻 보수를 진행하지 못했던 건 정

신장애를 앓고 있던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동생까지 책임지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 빠듯해서였다.

박씨의 이러한 사연을 나주시를 통해 전해들은 전남 사랑의열매는 그를 House Care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난 16일 낡은 나무 창틀과 창문을

우선 교체했다.

또 누수가 심한 옥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방수 공사를 진행했고 거실의 오래된 상들리에도 새로운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이날 도배 작업까지 깔끔하게 끝나자 박씨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연신 말했다.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또 천장에서 물이 새겠다’라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다”며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바가지를 두거나 휴지로 닦으며 비가 그치기만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어 “겨울엔 외풍이 심해 보일러를 틀어도 방 안이 차가웠다”며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창틀 교체, 지붕 방수, 벽지 교체까지 해 준 덕에 ‘살수 있는 집’이 된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이른 시일 내에 한 차례 더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박씨에 대한 House Care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속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을 개선함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사랑의열매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붕·창호·주방·화장실·도배·장판·누수 공사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보수다.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따뜻한 전남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여순사건 농민대회 참여자 사후 재심서 무죄

유족 “재판부 결정 감사”

여순사건 당시 농민대회에 참여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고인(故人)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혐의로 금고 3년형을 확정받은 A씨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6년생인 A씨는 여순사건 당시 여수 한 광

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여해 군중 연설을 하고 인민군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처벌받았다.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고문 및 가혹 행위 등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는 8월에 이뤄졌으며, A씨의 유족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증거가 없으며 있어도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심 공판 당시 구형을 하지 않았던 검찰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신해 재판에 출석한 그의 동생과 조카는 선고 후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법규 위반 차량들 상대 ‘고의 사고’
보험금 쟁긴 배달·택시기사 검찰청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쟁긴 배달·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30대)·B (40대)씨를 최근 송치했다.

배달기사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

지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침범 등 차량과 고의로 ‘비접촉 사고’를 내 12회에 걸쳐 3천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B씨는 2023년 9월 여수 소재 일방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두 차례 내고 보험금 약 6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더 큰 피해를 막고자 미리 넘어진 것이고 보험사기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파손된 핸드폰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점과 넘어짐을 방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혐의를 적용했다.

B씨 역시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동일한 사고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전남경찰청이 수사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수는 3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09건, 147건이었다. /안재영 기자

허위 감정가로 수십억대 불법대출 일당 재판대에

지역 신탁·농협 4곳서 약 38억7천만원

법무사 등 13명...총책 수법 배워 범행

광주 지역 신탁과 농협을 상대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수십억대 담보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60대)씨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담보 서류를 위조해 광주 지역 신탁·농협 각각 2곳에서 총 38억7천만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이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에는 담보 토지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농협 직원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법무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2~3명 단위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는데 총책 A씨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범행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한 대출

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 기자

신안·담양·구례서 교통사고...4명 사망

전남에서 차를 들이받거나 치여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2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1분께 신안군 증도면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SUV 안에서 A (20대)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전날 오후 10시19분께 담양군 담양읍 소재 회전교 차로 인근 도로에선 보행자 B (80대)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후 B씨는 또다른 SUV에 치여 결국 사망했다. B씨를 구호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승용차 운전자도 2차 사고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 7시19분께 구례군 용평면 한 도로에 선자전거를 타고 가던 C (60대)씨가 뒤에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